

# ‘KTX 타고 제주 가자’ 해남-완도-제주 고속철 구축 논의

### 해남군, 토론회 개최...사업 타당성 재평가·대안 노선 경제성 분석 다양한 노선 검토·여론 수렴 등 거쳐 5차 국가계획 반영 건의 계획

해남군과 완도군을 거쳐 제주로 이어지는 고속철도 교통망 구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해남군은 지난 17일 해남군 우슬동백제육관에서 윤재갑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해남군과 완도군이 공동주관한 서울-제주 고속철도(KTX) 건설 토론회 ‘KTX 타고 제주가자!’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사업 타당성을 재평가하고, 다양한 대안 노선들에 대한 경제성 및 정책 분석을 통해 향후 일정에 따른 추진 전략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윤재갑 국회의원을 비롯해 명현관 해남군수, 신우철 완도군수 등 양군 관계자들과 주민 500여명이 참석해 팔각곶역 고속철도 연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시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제주까지 해저터널을 통해 고속철도를 완공하고 자 하는 국가철도망 계획은 제주도와도 협력방안 마련이 우선으로,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며 “해남군과 완도군까지 고속철도망을 먼저 건설하고, 제주노선은 여건이 성숙되면 향후 2단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정치권이 삼위일체가 되어 한목소리가 돼 필요성을 적극 요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전남도 철도망 구축계획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국가계획 반영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한 전략을 준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러진 토론회에서는 강승철 대중교통포럼 회장을 좌장으로 김연규 삼보기술단 사장, 신순호 목포대 명예교수, 임광근 송원대 교수, 박석희 해남군 건설도시과장과 김진원 완도군 건설과장의 종합 토론회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제주도 고속철 연결이 해남, 완도 등 지역연결 뿐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 국가사업이리라는 공감대를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실제 해외 사례를 보듯이 고속철 연결이 제주도에도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설득해 나가고, 국민들의 높은 고속철도 선호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해 서울-제주간 고속철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토론자들도 해남, 완도구간 고속철도 연결은 한반도 서부축의 고속교통망 구축을 통해 솔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 해양유치산업 육성 등 산업과 관광 활성화를 물론 교통의 중심지로 부각되는 효과



윤재갑 국회의원을 비롯해 명현관 해남군수, 신우철 완도군수 등 서울-제주 고속철도(KTX) 건설 토론회 참가자들이 토론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남군은 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된 나주-강진-해남-완도, 나주-무안공항-임성리-영암-해남-완도, 나주-무안공항-임성리-해남-완도, 나주-해남-완도 등 다양한 대안 노선들을 검토하고 지역 여론 수렴을 거쳐 전남도와 함께 사업타당성 향상 방안을 마련한 후 제5차 국가계획 반영을 건의할 계

획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5년마다 국가철도망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계획으로 제5차 계획은 2026~2035년 기간을 대상으로 내년부턴 본격적으로 수립에 착수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 미래발전에 중대한 계기가 될 고속철도 연결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자

리가 마련되어 의미가 깊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 국회의원, 전남도와 완도군 등 주변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주민들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해남 홀몸어르신 돌보는 반려로봇 ‘효돌’

### 군, AI 반려로봇 무상 보급...맞춤 대화·약 복용 등 일정 관리



해남군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관리를 위해 AI 반려로봇 ‘효돌’을 보급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AI 반려로봇 ‘효돌’이 있어 든든해요.” 해남군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관리를 위해 AI 반려로봇 ‘효돌’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려로봇 효돌은 몸체에 센서가 내장돼 만지면 프로그램이 작동하며 양방향 대화가 가능하다. 효돌은 어린이의 모습을 본떠 만든 봉제 인형 형태로 제작돼 기존 반려로봇보다 어르신들이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이 반려로봇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관리를 돕기 위해 상황에 맞춘 맞춤 대화, 약 복용 시간 및 일정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노래, 쿼즈, 종교 생방송 등 다양한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정서와 건강을 살피는 데 도움을 준다.

또 24시간 응급상황 모니터링 관제 시스템과 연

계대 움직임이 일정 시간 감지되지 않으면 응급 구조 요청까지 가능해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시·군당 50명씩, 총 22개 시·군에 걸쳐 1100여명의 독거노인에게 반려로봇을 보급한다.

해남군은 질병 및 인지능력 등을 평가해 우울증이 있는 독거 어르신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하고 올해 연말까지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기용 해남군 가족행복과 어르신복지팀장은 “반려로봇 도입은 정서 관리와 건강관리에 도움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들의 맞춤형 생활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효돌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효돌’이 따뜻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아동학대 예방으로 행복한 영광 만들기

### 유관기관 합동 홍보 캠페인...공정 양육 홍보물 배포 등

영광군이 아동학대 예방주간(11월19일~25일)을 맞아 지난 16일 영광읍 일원에서 아동학대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참여한 영광군, 영광경찰서, 영광교육지원청,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영광군생활공감정착센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과 공정 양육 홍보물을 배포했다.

아동학대는 물리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아이를 괴롭게 하는 정신적 폭력과 아이를 방치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 방임도 해당한다. 10월말 기준 36건이 발생했고 부부싸움, 폭언, 아동방치가 아

동학대임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도 많다는 게 영광군의 분석이다.

영광군은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영광경찰서 또는 경찰서(신고전화 112, 353-1391)로 신고해주시길 당부하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함을 강조했다.

이택신 영광군 가정행복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양육방법 등 인식개선을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정 양육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잘못된 훈육 방법이 아동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군민과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 영암군 조직개편...3개 국장체계 도입 추진

### 기획행정·문화복지·농업경제건설국 신설...내년 1월부터 적용

영암군이 군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3개 국장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영암군은 기획행정국, 문화복지국, 농업경제건설국 등 3개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안을 확정해 영암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영암군이 전남연구원에 의뢰한 ‘2023년 조직진단 연구 용역’에 따른 것이다.

전남연구원은 지난 8~11월까지 3개월간 부서간 사무량 및 직무분석 조사, 실과별 심층 인터뷰, 유사 지자체 비교 분석 등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팀 세분화로 인한 업무 연계성 저하

및 협업의 어려움 ▲결원에 따른 과소 팀 발생으로 인한 직원 업무 부담 증가 ▲시설통합관리와 민간 위탁 등 정책환경 변화 대응 ▲인구소멸, 고령화, 상권활력 저하에 따른 위기의식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전남연구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1실 1담당관 17과 2직속기관 4사업소 체계를, 3국 18과 2직속기관 2사업소로 조직 개편을 제안했다. 3개국 체계로 개편을 통해 협업과 기획·조정 체계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또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는 특별한 변화 없이

기존대로 직속기관으로 편성했다.

당초 4개 사업소는 창의문화사업소와 종합사회복지관을 본청과로 통합하고, 수도사업소와 대불기업지원단 사업소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조직 개편안은 향후 의회 보고와 조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조직 정비와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국장직 공무원들이 컨트를 타워로 중장기적·구조적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민원대응력과 종합행정력을 강화해 군민중심행정, 지속가능한 영암 발전을 위해 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 자유·번영 한반도를 위한 통일준비 과제

### 민주평통 자문회의, 목포서 전남평화통일포럼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남지역회의(전남부의장 우승하)가 지난 17일 목포신안비치호텔에서 포럼회원들과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 하반기 전남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자유·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통일준비 과제’란 주제로 열린 포럼은 이혜정 통일경제센터장이 발

제했다. 이어 최영수 전남포럼연구위원장의 사회로 정기영 교수, 김삼열 교수, 유승창 교수 등 참여한 가운데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전남평화통일포럼은 통일 논의 공론화 및 지속성 확보, 주제에 대해 집중 토론 및 의견수렴, 역할자와 포럼회원간의 자유로운 토론 진행으로 포럼

회원과 자문위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승하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남북 분단으로 이질화된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찾아 이를 창의적으로 융합하고 민족의 보편적 가치와 평화 실현을 위해 오랜 기간 다른 체제속에서 살아온 남북한 주민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바람직한 통일국가형성의 방향을 찾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언어, 역사, 예술분야부터 시작해 남북한 대립을 극복하고 오늘 포럼에서 평화로운 공존의 길을 가져 봤으면 한다”고 밝혔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아침 한끼로 건강 챙기고 쌀 소비 촉진”



진도군이 친환경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아침밥 먹기’ 운동을 진행했다. (진도군 제공)

### 진도군, 초등생 ‘아침밥 먹기’ 운동

진도군이 ‘아침밥 먹기’ 운동을 펼치며 친환경 쌀 소비 촉진이 나섰습니다.

‘아침밥 먹기’ 운동은 진도지역 공공기관 직원들과 초등학생 등 1900여 명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됐다.

진도군은 이들에게 우리 쌀로 만든 양념 가래떡과 친환경 잡곡을 전했다.

초등학생에게는 아침 식사의 중요성과 식생활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아침밥 먹기 운동을 했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식습관과 올바른 식생활을 위해 쌀 소비촉진 활동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 ‘항일운동’ 앞장 자주독립 공헌 근우회 목포지회 표지석 제막

목포시의회는 남교소극장(옛 목포청년회관)에서 일제강점기 때 조국의 자주독립에 공헌한 근우회 목포지회를 기리는 표지석 제막식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목포여성단체협의회·목포여성인권연대가 공동주관한 행사에는 박홍률 목포시장, 김원이 국회의원, 문차복 목포시의회의장, 최유란 시의원을 비롯해 목포여성단체협의회, 목포여성인권연대 등 목포여성단체 회원 50여명이 참석했다.

1927년 창립된 근우회는 신간회와 연대해 활발한 독립운동을 펼쳤으며, 그중 목포지회는 항일운동과 함께 여성의 권익신장 계몽활동 음악회 연극회 등의 활동을 했다.

근우회 목포지회 표지석 설치를 위해 앞장선 최유란 시의원은 “근우회는 신간회와 함께 항일운동을 전개해 역사적 의미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목포청년회관 아외에 신간회 표지석만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근우회 목포지회 활동은 목포의 가치 있는 역사적·문화적 관광자원으로도 잘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